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국내 제조업, 얼마나 과잉투자되어 있나?
- 과잉자본스톡 85조원 점진적 조정 필요

목 차

- 국내 제조업, 얼마나 과잉투자되어 있나?
- 과잉자본스톡 85조원 점진적 조정 필요

Executive Summary	i
1. 과잉투자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국내 제조업	1
2. 경영성과 측면에서 살펴 본 기업의 과잉투자 가능성	2
3. 국내 산업의 과잉자본스톡 추정	5
4. 시사점	9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동북아연구실 : 박 용 정 연 구 원 (2072-6204, yongjung@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내 제조업, 얼마나 과잉투자되어 있나?

- 과잉자본스톡 85조원 점진적 조정 필요

■ 과잉투자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국내 제조업

최근 국내 산업은 가동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고 조정이 지연되는 등 산업 전반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반면 생산능력 확충이 지속되고 있어 과잉투자 및 이의 조정에 따르는 경기 감속이 우려되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6년 들어 3/4분기까지 평균 72.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진입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전산업생산지수는 2016년 3/4분기까지 평균 111.2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산업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에 대한 과잉자본스톡 규모를 추정하고 향후 국내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불안정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경영성과 측면에서 살펴 본 기업의 과잉투자 가능성

경영성과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의 과잉투자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들은 성장성 정체는 물론 수익성과 생산성 모두 악화되고 있어 향후 이의 개선을 위한 경영 구조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제조업의 성장성이 정체되고 있다.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락한 후 2015년에는 전년 대비 0.3%에 그치는 등 매출액 증가율 개선이 저조하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2014년 -1.6%에 이어 2015년에도 전년 대비 -3.0%를 기록함에 따라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둘째,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전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2009년 평균 5.0%에서 2013~2015년에는 4.3%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부문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제조업의 경우 동기간 5.9%에서 4.8%로 1.1%p 하락했으며, 건설업은 4.7%에서 2.6%로 2.1%p, 서비스업은 4.2%에서 3.8%로 0.4%p 하락했다. 셋째, 산업 전반에 걸쳐 자본효율성도 나빠지고 있다. 전산업 총자본투자효율(부가가치/총자본*100)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2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간 평균 17.2%로 크게 악화되었다. 한편,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총자본투자효율도 최근에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총자본투자효율은 2000년대 중반에 약 25%에서 2013~2015년에는 평균 19.0%까지 지속 하락하였다.

■ 국내 산업의 과잉자본스톡 추정

전통적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를 활용하여 산업별 과잉자본스톡을 추산한 결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과잉자본스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마이너스 GDP 갭률(수요 감소,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과잉자본스톡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과잉자본스톡 규모는 2015년 약 8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이는 실질 GDP 대비 5.8%의 높은 수준이다. 다만,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분의 경우, 최근 들어 GDP 갭률이 상승(수요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하면서 과잉자본스톡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장은 과잉자본스톡 현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시사점

최근 국내 경제는 대내외 환경 악화로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일 뿐 아니라 특정 산업의 과잉투자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중장기 경기 부진 현상을 야기할 우려가 커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산업구조조정 정책 추진을 통해 산업 및 경제 전반의 수급 균형을 꾀해야 한다.** 단, 현재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을 명확히 평가하여, 차별적인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구조조정이 민간 중심으로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장려함으로써 자생적인 구조개선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 부문에 대한 인수·합병 촉진을 위해서는 금융이나 세제 등의 정책 지원 뿐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급락 현상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경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구조조정마저 동반 진행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경기 진작책이 필요하다. 특히, 구조조정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발생하게 될 실업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보다 면밀한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은 물론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같은 구조적인 개선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본과 노동 투입 의존형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우수 인적자본과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한 경제·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다섯째, **新성장 산업 발굴 노력 강화를 통해 산업 구조의 개선은 물론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 소위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주요 산업 및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육성은 국내 산업 및 경제의 구조개선 뿐 아니라 미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과잉투자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국내 제조업

- 최근 국내 산업은 가동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고 조정이 지연되는 등 산업 전반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반면 생산능력 확충이 지속되고 있어 과잉투자 및 이의 조정에 따르는 경기 감속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산업생산지수는 상승세

- 전산업생산지수는 2010년 100.0에 진입하였고 2016년 3/4분기까지 평균 111.2를 나타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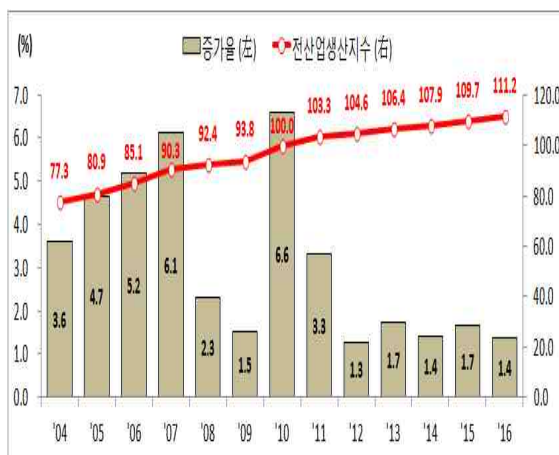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04년 이후 최저 수준

- 2011년 80.5%를 기록하였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6년 3/4분기까지 평균 72.4%를 기록하는데 이는 2004년 이후 최저 수준

- 본고에서는 국내 산업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에 대한 과잉자본스톡 규모를 추정 후 향후 국내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불안정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경영성과 측면에서 기업 과잉투자 가능성 및 이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는 정책 대안의 타당성을 보완

< 전산업생산지수 및 증가율 추이 >



자료 : KOSIS.

- 주 1) '16년은 3/4분기까지 평균.
- 2) 농림어업 제외 원지수.
- 3) 전년대비 증가율 (%).

<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



자료 : KOSIS.

- 주 1) '16년은 3/4분기까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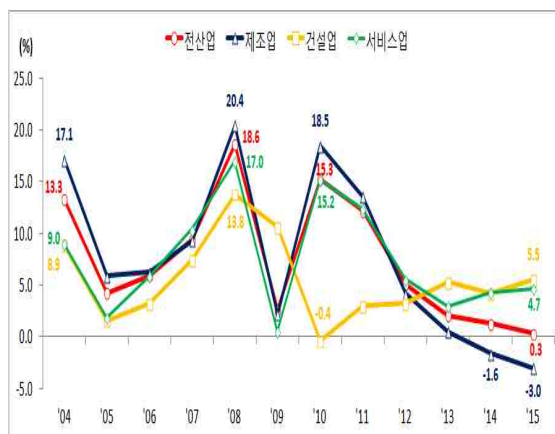
2. 경영성과 측면에서 살펴 본 기업의 과잉투자 가능성

○ (성장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¹⁾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 전반이 성장 정체 현상에 직면

-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성장 정체
 -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08년 18.6%까지 상승하였으나, 2015년에는 0.3% 수준까지 성장이 급격히 하락하며 정체 현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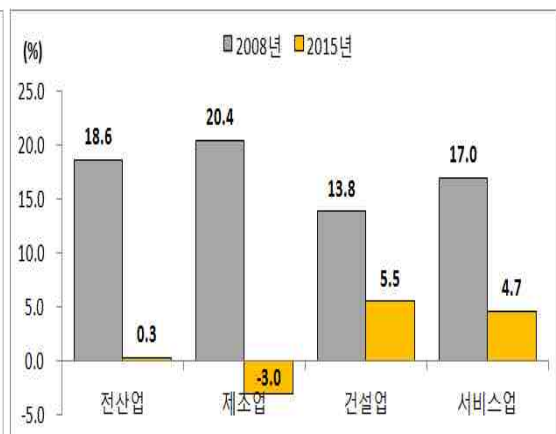
- 주요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
 -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18.5%에서 하락세가 지속, 2014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하였는데 2015년에는 -3.0%로 매출액 감소폭이 확대됨
 - 건설업 매출액은 2010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후 등락을 반복하다 2015년에는 5.5%까지 증가세가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한편,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비스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4년 반등 후 2015년에는 4.7%를 기록

< 매출액 증가율 추이 >



자료 : ECOS.
 주 1)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재구성.
 2) 전년대비 증가율 (%).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매출액 증가율 비교 >



자료 : ECOS.
 주 1)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재구성.
 2) 전년대비 증가율 (%).

1) 매출액증가율(Growth rate of sales)은 기업의 외형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 매출액 증가율 =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100-100.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참고.

○ (수익성) 전산업 매출액영업이익률²⁾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악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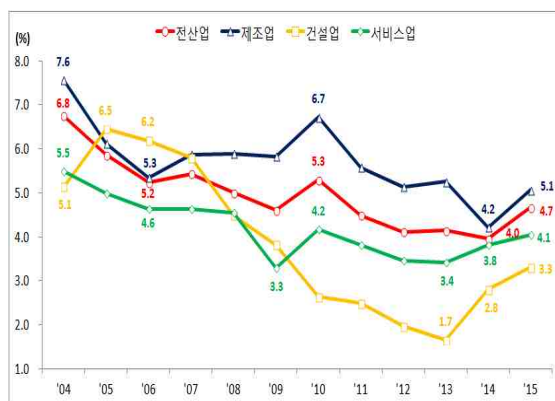
- 전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하락

- 2004년 6.8%를 기록한 전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4년 4.0%를 기록한 후 2015년 4.7%로 반등
- 2007~2009년 3년 간 평균 5.0% 수준이었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3~2015년에는 평균 4.3%로 0.7%p 하락

-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2010년 6.7% 수준까지 상승하였던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이후 급락, 2014년에는 4.2%를 기록
- 건설업의 경우, 2013년 1.7%를 저점으로 반등, 서비스업 역시 2013년 3.4%를 저점으로 소폭 상승
- 기간별로 보면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3~2015년 4.8%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2013~2015년 평균 각각 2.6%, 3.8%로 2010~2012년에 비해 상승 혹은 같은 수준을 기록

<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



자료 : ECOS.
주 1)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재구성.

< 기간별 매출액영업이익률 >

구분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04~'06년	6.0	6.3	5.9	5.0
'07~'09년	5.0	5.9	4.7	4.2
'10~'12년	4.6	5.8	2.4	3.8
'13~'15년	4.3	4.8	2.6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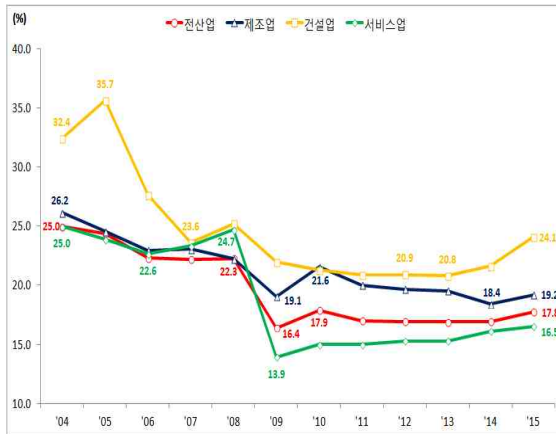
자료 : ECOS.
주 1)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재구성.
2) 기간별 연평균 (%).

2) 매출액영업이익률 (Operating income to sales)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 활동과 직접 관계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 측정에 유용.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참고.

○ (생산성)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전산업 총자본투자효율³⁾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등 국내 기업의 자본 생산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락한 전산업 총자본투자효율 수준이 최근에도 회복세가 미약한 등 기업 자본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악화
 - 전반적으로 총자본투자효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6.4%로 하락한 후 최근에도 위기 이전의 20%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2007~2009년 평균 20.3% 수준이었던 총자본투자효율은 2013~2015년 평균 17.2%까지 하락
-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총자본투자효율은 최근 미약하나마 회복되고 있으나, 제조업은 여전히 회복세가 지연
 -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2013년, 2009년을 기점으로 반등하며 소폭 상승 추세에 있고 2013~2015년 기간별 평균도 전기 동기간에 비해 다소 상승
 - 한편, 2004~2006년 평균 24.6%에 달했던 제조업 총자본투자효율은 2013~2015년 평균 19.0%까지 하락

< 총자본투자효율 추이 >



자료 : ECOS.
주 1)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재구성.

< 기간별 총자본투자효율 >

구분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04~'06년	23.9	24.6	31.9	23.8
'07~'09년	20.3	21.4	23.6	20.6
'10~'12년	17.3	20.4	21.0	15.1
'13~'15년	17.2	19.0	22.2	16.0

자료 : ECOS.
주 1)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재구성.
2) 기간별 연평균 (%).

3) 총자본투자효율 (Gross value-added to total assets)은 기업에 투자된 총자본이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자본생산성(Productivity of capital) 측정 지표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총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음을 의미. 총자본투자효율 = 부가가치/총자본(평균)*100.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참고.

3. 국내 산업의 과잉자본스톡 추정

1) 추정방법

- (추정방법) 전통적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를 활용하여 산업별 GDP 갭률을 추정한 후 산업별 순자본스톡을 곱한 값을 과잉자본스톡으로 함

- 산업별 총생산을 총요소생산성, 자본, 노동의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생산함수 접근법을 이용하여 산업별 잠재 GDP 성장률을 추정
 - Y_t 는 산업별 총생산, $\gamma e^{\lambda T}$ 는 총요소생산성, K_t^α 는 자본투입, $(L_t H_t)^{1-\alpha}$ 는 노동투입이며 α 는 자본분배율, $1-\alpha$ 는 노동분배율을 의미

$$Y_t = \gamma e^{\lambda T} K_t^\alpha (L_t H_t)^{1-\alpha}$$

- 자본투입은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의 순자본스톡 자료를 활용
 - 순자본스톡은 2014년까지만 제공되는데 2015년 순자본스톡은 영구재고법을 이용하여 추정⁴⁾
- 노동투입은 취업자수에 노동시간을 곱하여 도출
 - 산업별 취업자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노동시간은 통계청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활용하여 노동투입 측정
- 총요소생산성은 자본과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를 제외한 값
- 과잉자본스톡은 Hodrick-Prescott filtering을 통해 얻은 산업별 GDP 갭률에 순자본스톡을 곱하여 추정
 - 잠재 GDP 수준도 Hodrick-Prescott filtering을 이용해 추정

$$GDP\text{갭률}(\%) = \left[\frac{\text{실질 GDP} - \text{잠재 GDP}}{\text{잠재 GDP}} \right] \times 100$$

4) $K_t = (1-\delta)K_{t-1} + TFI_{t-1}$. 감가상각률 δ 은 [당년도 실질고정자본소모/전년도 자본스톡]으로 산출하였는데 TFI_{t-1} 은 전년도 총고정투자를 의미함.

2) 산업별 과잉자본스톡 추정 결과

○ (제조업) 마이너스 GDP 갭률 폭이 확대되면서 과잉자본스톡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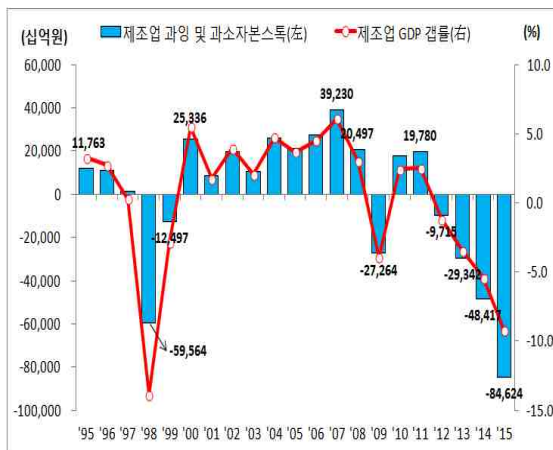
- (잠재 GDP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 잠재 GDP 성장률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

- 잠재 GDP 성장률은 2011~2015년 평균 약 5.87%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또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1995~1998년 평균 4.79%p에서 2011~2015년 평균 2.05%p까지 하락

- (GDP 갭률) GDP 갭률은 2012년에 마이너스 수준으로 하락한 후 2015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 전반의 과잉공급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

- (과잉자본스톡) 2012년 GDP 갭률이 마이너스에 진입하면서 제조업의 과잉자본스톡 규모는 점차 확대, 2015년에는 약 85조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실질 GDP의 5.8% 수준

< 제조업 GDP 갭률 및 과잉자본스톡 규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숫자는 과잉 및 과소자본스톡규모 (십억원).
 2) 마이너스 값은 과잉자본스톡을 의미.

< 제조업 잠재GDP성장률 GDP디플레이터 변화율 및 총요소생산성 >

구분	제조업 잠재GDP 성장률	제조업 GDP 디플레이터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95~'98년	8.78	4.95	4.79
'99~'02년	7.02	-2.97	3.49
'03~'06년	6.81	0.06	3.32
'07~'10년	6.68	3.38	3.47
'11~'15년	5.87	0.08	2.0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ECOS.
 주 1) 기간별 연평균 (%).
 2)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p).

○ (건설업) 잠재 GDP 성장률은 0%대의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GDP 갭률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됨에 따라 과잉자본스톡 현상도 점차 해소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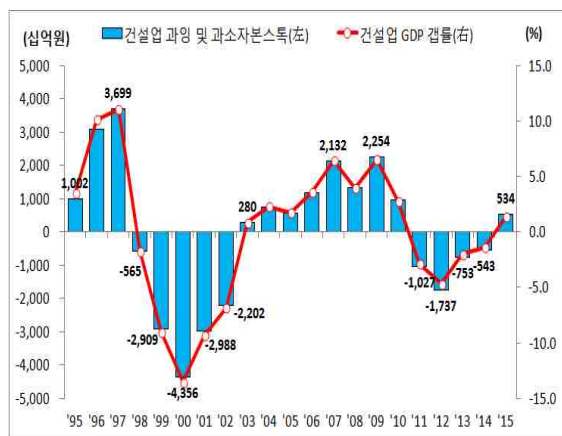
- (잠재 GDP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 미약하나마 잠재 GDP 성장률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전환

- 2003~2006년 평균 -0.03% 수준을 기록하였던 건설업 잠재 GDP 성장률은 이후 회복세로 전환, 2011~2015년에는 평균 0.14%까지 회복
- 한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2011~2015년 평균 -1.25%p로 건설업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GDP 갭률 및 과잉자본스톡) 최근 들어 GDP 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과잉공급 현상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1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GDP 갭률은 2012년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2015년에 플러스 수준을 되찾음
- 이로 인해 2012년 약 1.7조 원 수준에 달했던 과잉자본스톡이 최근 들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추정됨

< 건설업 GDP 갭률 및 과잉자본스톡 규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숫자는 과잉 및 과소자본스톡규모 (십억원).
 2) 마이너스 값은 과잉자본스톡을 의미.

< 건설업 잠재GDP성장률 GDP디플레이터 변화율 및 총요소생산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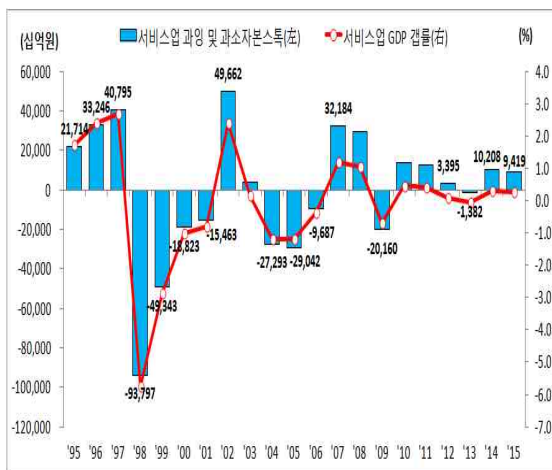
구분	건설업 잠재GDP 성장률	건설업 GDP 디플레이터	건설업 총요소생산성
'95~'98년	0.81	5.33	0.16
'99~'02년	0.18	4.33	-0.86
'03~'06년	-0.03	4.49	-0.24
'07~'10년	0.07	2.11	2.81
'11~'15년	0.14	4.58	-1.2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ECOS.
 주 1) 기간별 연평균 (%).
 2)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p).

○ (서비스업) 잠재 GDP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GDP 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과잉공급 우려는 다소 약화되었음

- (잠재 GDP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 잠재 GDP 성장률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악화
 - 1995~1998년 평균 6.61% 수준이었던 잠재 GDP 성장률이 2011~2015년 평균 2.98%까지 하락
 - 2007~2010년 평균 2.68%p까지 회복되었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2011~2015년에는 평균 0.96%p로 급락
- (GDP 갭률 및 과잉자본스톡)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락했던 GDP 갭률이 이후 회복, 최근에는 다소 안정적으로 추이하면서 과잉공급 현상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한 때 약 90조원에 육박하던 서비스업 과잉자본스톡이 축소·조정되고 있음
 - 특히, 2014년 이후 GDP 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과잉자본스톡 문제는 전반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서비스업 GDP 갭률 및 과잉자본스톡 규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숫자는 과잉 및 과소자본스톡규모(십억원).
 2) 마이너스 값은 과잉자본스톡을 의미.

< 서비스업 잠재GDP성장률 GDP디플레이터 변화율 및 총요소생산성 >

구분	서비스업 잠재GDP 성장률	서비스업 GDP 디플레이터	서비스업 총요소 생산성
'95~'98년	6.61	5.62	1.92
'99~'02년	5.11	2.79	0.45
'03~'06년	4.01	3.11	1.73
'07~'10년	3.38	3.00	2.68
'11~'15년	2.98	1.51	0.96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ECOS.
 주 1) 기간별 연평균 (%).
 2)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p).

4. 시사점

- 최근 국내 경제는 대내외 환경 악화로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일 뿐 아니라 특정 산업의 과잉투자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중장기 경기 부진 현상을 야기할 우려가 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첫째,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산업구조조정 정책 추진을 통해 산업 및 경제 전반의 수급 균형을 꾀해야 함
 - 특히, 제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수급 불균형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선업과 같은 특정 산업 뿐 아니라 타 산업 부문도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 지원책 마련이 중요함
 - 단, 현재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을 명확히 평가하여, 차별적인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둘째, 산업구조조정이 민간 중심으로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장려함으로써 자생적인 구조개선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함
 -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 부문에 대한 인수·합병 촉진을 위해서는 금융이나 세제 등의 정책 지원 뿐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셋째,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급락 현상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경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구조조정마저 동반 진행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경기 진작책이 필요함
 - 특히, 구조조정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발생하게 될 실업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보다 면밀한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은 물론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같은 구조적인 개선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자본과 노동 투입 의존형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우수 인적자본과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한 경제·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함
 - 한편, 기존 산업제품들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섯째, 新성장산업 발굴 노력 강화를 통해 산업 구조의 개선은 물론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함
 - 소위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주요 산업 및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육성은 국내 산업 및 경제의 구조개선 뿐 아니라 미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의 신기술들이 제조업 분야와 접목하여 산업구조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新성장산업을 발굴하고 선점하는데 힘써야 함

박용정 연구원 (2072-6204, yongjung@hri.co.kr)
이부형 이사대우 (2072-6306, Leebuh@hri.co.kr)